

2019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보존되는 길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사람 구주이시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뭇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갖기를 열망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으로써
그분을 알기를 열망해야 한다.

2019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함

메시지 1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빌 1:3-6, 19-21상, 27, 2:2, 20-21, 30, 3:1, 4:1, 4

I.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비밀이다.

- A.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골 2:2),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엡 3:4). 따라서 교회는 사실상 비밀 속의 비밀이다.
- B.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비밀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 나타낸 합당한 사랑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비밀이다 — 비교 엡 3:19상.
- C.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제한 없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빌 1:20).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 살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 주는 것이다.
- D.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의 무한한 인내로 체험한 것은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확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갖게 되는 속성들은 어떤 것이든 무한할 것이며 따라서 비밀할 것이다 — 빌 1:19-21상.
- E. 심지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다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는 것이다 — 마 18:21-22.
- F.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체험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그분을 제한이 없으신 분으로 표현할 것이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쁨이다 — 고후 12:7-10.
- G.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비밀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체험하든지 그것은 무한하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화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 H. 교회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살며,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모두 더해져 교회생활을 이룬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완전한 비밀이다 — 딤후 3:15-16.
- I.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상)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체험이 비밀하기 때문이다.

II.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임을 밝혀 준다 — 빌 1:3-6.

- A.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 1.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은 개인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생활,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교통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죽음을 당한다.
 - 2. 우리가 말할 때든지 잠잠할 때든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와 전 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 B.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 빌 1:27.

1.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고 같은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 빌 2:20-21, 30.
2. 한 혼이 되려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뒤에 더 전진하여 우리 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 고후 3:18, 롬 12:2.
3.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품행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4.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III. 엄격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 A.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체험과 누림은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 B.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것이다. 음식을 억지로 받아먹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누리지 못한다.
- C.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 D.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 봐 다소 염려가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497쪽)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의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빌 2:2).
- E.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빌 4:2),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2:2).
 1.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한 가지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을 가리킨다(빌 1:20-21, 2:5, 3:7-9, 4:13).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온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2. 한 가지 것은 몸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가 시종일관 우리의 생각을 점유해야 한다. 우리가 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한다면, 즉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3.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빌 3:8, 10).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4. 한 가지 것 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5. 빌립보의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빌 2:2).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절되고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6.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곧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한다.
 7.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누림도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합당한 혼, 곧 다른 성도들의 혼과 하나인 ‘함께하는 혼’을 가져야 한다.
 8.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보존되는 길이다.